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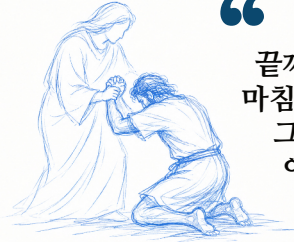
본문: 창세기 48장 1-6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옛 사람의 종말과 새 생명의 연합



“속이고 거짓말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그가 항복할 때까지 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 본문 주일설교 (8/2) 중 -

창세기 48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과,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온 애굽 총리 요셉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본래 욕에 속한 자요, 남을 속이는 이기적인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와 다투어 항복을 받아내셨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자기 욕심을 구하던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남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교회 와서도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신앙은 수십 년을 해도 응답이 없고 지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주일 11시에 예배당 순서를 따라가는 것만을 예배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성전 모형을 따라가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한 성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친히 말씀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산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을 좇아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의 성령이 밖으로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영역이 넓어 집니다.

성경은 머리와 학문으로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심령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하신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들어와 즉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과 기도는 스스로 길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로(레일)가 잘 닦여 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의 길을 이미 완벽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내 욕심대로 구했던 쓸데없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이루신 길 위에 나를 죽여 업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을 때 기도도 쉬워지고 참된 자유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환경과 질병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침상에 힘없이 병들어 누워 있는 자는 욕신을 가진 인간 '야곱'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환경과 질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일어서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육체는 비록 약해질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고백하며, 마침내 타인을 축복하는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부귀영화가 아닌 '벤엘의 계시'를 물려주는 삶입니다. 야곱은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 외롭고 절망적인 루스 들판을 하나님의 집인 베엘로 바꾸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아들 요셉에게 증언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참으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세상의 재물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셋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보여주는 '이방 구원의 모형'입니다.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과 동등한 지위로 삼아 기업을 상속했습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한 일원이 되는 구원의 모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둘째에게 임하는 '오른손의 축복'이 가진 영적 의미입니다. 야곱은 손을 어긋맞겨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이는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욕의 첫 사람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둘째 사람, 즉 거듭난 새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업과 복을 상속받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욕을 깨뜨리고 우리 영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환경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도 절망하며 자학할 것이 아니라, 열른 영 안으로 들어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용서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축복의 길 위에 자신을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을 의지하여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 48:4)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rom Jacob to Israel, Transformed by Sovereign Grace

Core theme

Genesis 48 uses two names for one man: Jacob, too weak to rise in his own strength, and Israel, who is strengthened by God to bless his family. This name change marks a deeper change of identity accomplished by God—from an old self ruled by flesh and anxiety into a new creation alive in Christ. As believers, our hope rests not in our own efforts to perform or improve ourselves, but in the completed work of Christ, who crucifies our old nature and flows His life, peace, and blessings through us.

Word reaches Joseph that his father, Jacob, is dying, and Joseph rushes to his side with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Here's something easy to miss in Genesis 48. When Jacob hears that Joseph has come, he gathers his strength to sit up in bed. Yet, Scripture changes how it refers to him—the man too weak to move is called *Jacob* [verse 2], while the man who sits up in faith to bless his grandsons is called *Israel* [verse 8]. Same body, same sickness. But these two different names symbolize two different identities.

Jacob was born a trickster who lied to take advantage of his brother, father and others. But one night, God wrestled with him, breaking his hip which represented his self-reliance, and gave him a new name—Israel. Jacob becoming Israel signifies that a self-centered life ruled by one's own thoughts and plans was transformed into a life of faith as a vessel of God, worshiping Him and blessing others. Jacob did not make himself Israel through any effort at self-improvement. His life reveals that true transformation is never achieved by human deter-

mination, but is granted entirely through God's initiative and grace.

For us today, this name shift illustrates the difference between self-directed religion and true life in Christ. A faith driven by our fallen nature—praying, "Lord, fulfill *my* will"—relies on human effort and remains unanswered even after decades, leaving one tired and discouraged. But when we meet the Lord, our old self dies, and we ar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Then, we are able to rest in Christ, letting His will be done, so that the life and blessings of Jesus flow out to those around us. Walking as "Israel" is not about trying to become good people; it is resting in Christ so that His grace naturally overflows from within us, just as water naturally flows downward.

Jacob does something surprising. He claims Joseph's sons Ephraim and Manasse—who were born to an Egyptian mother, not Jewish—as his very own sons, giving them a full inheritance as equals to his biological sons. This shows how non-Jewish believers—outsiders to the original covenant—are brought into God's family purely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We were outsiders once. Now we belong as sons and daughters with a full inheritance.

Furthermore, Jacob intentionally gives his main blessing on the younger brother (not the firstborn son). This symbolizes the truth that the first man of the flesh, belonging to fallen Adam, passes away, and only the second man—born again by the Spirit in Christ, the regenerated new life—inherits the true inheritance and blessing of the kingdom of God.

Consider what Jacob passed down to Joseph: not money, power, or personal achievements, but the reality of God's covenant promise. Joseph did not seek Egypt's glory for his sons; he brought them to receive the

blessing of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is is the same choice each of us faces today. What are we actually passing down to the people who come after us? Our children, grandkids, friends, and people watching how we live? It is easy to pass along our anxieties, generational trauma, and the need to control outcomes. It takes a deliberate, faith-filled choice to pass along Christ instead. When the self dies and Christ lives in me, He gives me the strength to "sit up"—like Jacob did, frail and near death, yet rising up in bed to bless those around him with the words of the Spirit. That moment reveals the depth of Jacob's faith: it was not limited by his failing health or his bleak circumstances.

The same is true for us. You may not be able to change your circumstances. But when Christ lives in you, you're no longer confined to them either. You can choose which version of yourself speaks into the lives around you: the old self, ruled by fear and flesh, or the new self, alive in Christ, that rises up—even from weakness—to bless others out of the same grace you have received.

Every Christian undergoes this journey: moving away from focusing on yourself and your plans to resting in God's purpose and spreading His blessings to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We cannot achieve salvation, sanctification, or spiritual growth through our own resolve or efforts. Everything necessary for our redemption and victory was finished completely by Jesus on the cross. Let's praise God for the Holy Spirit dwelling within us and for our new life in Christ. May we die daily to our old self, trust completely in His completed work, and faithfully pour out His life and blessings to those around us.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유년부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

